



# 韓國固有茶에 對한 溯考

(A Study on Korean Indigenous beverages)

浦項實業專門大學 食品營養科 教授 吳 勝 熙\*

## 一. 緒 言

人間들이 살아가기 위해 人類歷史와 더불어 飲料를 마시기 시작하였고 나아가서, 一常生活에서 嗜好라는 것이 內面 깊숙히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불의 發見과 함께 이러한 嗜好를 滿足시키고, 또한 無限으로 동경하여 茶를 開發 飲用하게 되었다. 우리 先祖들은 [오래 전부터 우수한 茶를 開發하여 왔으며, 科學的이고 또한 人體에 有益한 傳來의 茶들이 있었다. 그러나 西歐文明의 導入으로 退色되어 오늘날 거의 普遍化되지 못한것이 事實이다. 이런 時點에서 우리 先祖가 즐기던 韓國固有飲料의 맛을 살펴보고 또한 우리 民族固有의 열을 찾고저 하는것이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되어 茶의 뜻과 歷史, 凡節, 茶에 事用되는 器具 및 왜 우리 固有茶를 마셔야 하는가를 알아본다.

## 二. 茶란 무엇인가?

百科辭典에 의하면 茶란 티벳地方이 原產地며 冬柏科植物의 잎을 採取하여 볶아서 乾燥시킨 다음 따듯한 물에 타서 먹는 것이라 하였으나 茶神傳에 의하면 茶란 茶葉을 法製하여 茶의 體인 물을 끓여 타서 먹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林園十六志에는 茶란 菴이란 이름으로 일찍부터 神農

本草에 記錄되어 있으나 唐나라때 와서 流行이 되어 世人들이 모두 茶를 重要視하여 一常生活에 利用되었다. 그러나 謝景體, 蘇子瞻이라는 사람들이 葉茶는 사람에게 해롭다는 [學說을 계속 論題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葉茶를 즐겨먹는 茶生活보다 枸杞子, 五味子, 五加皮와 같은 것을 달여 먹으면 人體에 有益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茶나무 이외에도 枸杞子 五味子와 같은 香藥餌性的의 것을 利用한 것도 茶라고 命名하였다. 이와같은 것으로 보아 茶란 우리 [先祖들은 茶葉이외에 香藥餌性的의 材料를 利用하여 달인것도 茶라고 한것이 확실하다.

## 三. 茶의 歷史

우리나라의 茶의 歷史는 現代까지 7段階로 나눌 수 있다.

### 1. 三國時代 以前の 茶生活

韓民族 建國初期의 歷史에 대한 文獻은 확실히 모르나 三國四郡時代는 韓나라와의 關係로 말미암아 中國의 茶가 흘러들어 왔을 것이라는 推測이 되며 一部文獻에 약간 記錄된 것에 의하면 백두산속에 있는 植物의 잎을 따서 물에 달맞게 달인 白山茶와 五味子, 枸杞子, 五加皮의 열매와 보리등의 곡물을 적당히 볶아 달여 마셨다는 것으로 보아 우리 民族의 茶生活은 香氣와

\* 産業應用技術士(食品製造加工)

藥利를 겸하는 열매와 나무잎을 달여 마시면서 茶生活의 規約을 정하지 않고 다만 마신다는 目的의아래 약간의 嗜好와 맛을 위해 먹는 飲料에 不可한 茶生活이었다.

## 2. 三國時代의 茶生活

新羅 27代의 善德王때는 茶를 즐겨마셨다는 記錄은 있으나, 茶나무를 栽培한 記錄은 없다. 茶나무를 직접 栽培하여 즐겨마신 것은 42대 興德王때였으며 이때부터 우리 民族의 茶生活은 우리 茶나무 잎을 利用한 葉茶의 生活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葉茶을 求하기가 몹시 어려워 주로 王室과 僧侶 및 花郎을 中心으로 茶를 즐겨마셨다. 특히 茶生活은 僧侶들이 盛行시켰는데 그 理由는 술을 마시지 않는 僧侶들은 茶를 마셔 精神을 맑게하는 同時에 잠을 멀리하는데 利用한 것이라 생각되며 또한 茶끓이는 소리가 坐禪을 도와주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僧侶들 사이에 茶生活은 매우 盛行하였다. 또한 茶는 佛前에 供養하는 飲食物로 利用되었기 때문에 더욱 茶를 貴하게 여기고 있었다. 花郎의 茶生活은 精神을 統一시키고 人格을 陶冶하는 目的으로 利用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庶民들은 葉茶을 구하기 어려워 香氣와 藥利가 兼用된 것을 먹었을 것이라 생각되며 특히 新羅人들은 薄荷茶를 즐겨 먹었다는 由來가 唐나라의 文獻에 記錄되어 있다. 이 時代의 茶名稱은 釜舌茶와 竹壚茶라는 것이 있었는데 釜舌茶는 興德王때 金大廉이 唐나라에 使臣으로 갔다오면서 茶種子를 갖고와 智異山 남너부근에 심어 그 일대 茶田이 70리를 뻗었으며 여기서 生産된 것을 말하고 竹壚茶는 가야국의 수로왕 비인 허씨가 印度에서 가지고 와서 金海 白月山에 심어서 生産된 것을 말한다. 新羅의 高僧인 원효대사는 茶生活을 하면서 茶모임을 組織하여 契라는 名稱을 使用하였으며 學者인 崔致遠 역시 茶生活을 하였으며 특히 茶를 즐기기 위해 唐나라의 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記錄이 있다. 이와같은 것으로 보아 고구려 백제보다 新羅人들은 茶를 즐겨마셨고 國內에서 生産된 茶葉이외도 中國에서 가져도 輸入하여 飲用한 정도의 茶生活이었다.

## 3. 高麗時代의 茶生活

이 時代에는 護國佛敎의 精神 아래 茶는 寺院에서 寺院으로 傳來되었으며 특히 高麗 歷代 王들은 佛敎의 思想을 國政의 根本으로 삼아 殺生을 禁하였으며 食肉을 節制함에 따라 茶를 마시는 風習이 매우 盛行하여 進茶禮와 茶房이 생겼는 것으로 보아 飲茶는 嗜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점점 형식적인 狀態로 轉換되면서 茶生活이 茶道의 狀態로 되어 대단히 복잡성을 띤 엄격한 茶生活이었다. 그러나 高麗의 茶生活은 初期에는 茶와 禪이 結付되지 못하였고 末期에가서 茶人은 茶와 禪이 結付된 이른바 茶禪一體의 境地를 한껏 追究하게 되었다. 또한 國家의 行事인 然燈會와 八關會, 王子, 王妃 册封儀, 公主下家儀등에는 반드시 進茶의 禮式이 있었는데 이러한 禮式은 대단히 嚴格하였을뿐 아니라 여기에는 반드시 茶道를 行한다. 여기에 消耗되는 모든 茶는 國內에서 生産된 茶를 利用하지 않고 文獻上에 살펴보면 宋茶의 龍鳳團이 高麗王室에 최초로 온것이 11代 文宗 32年(1078)이며 17代 仁宗(1122~1146)때에와서는 대단히 盛行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百年이나 넘게 中國에서 輸入하여 國庫의 損失도 대단히 컸었다. 그러나 茶生活에 끼친 좋은 점은 高麗文化의 極致의 高麗靑磁를 만들 수 있는 根源이 茶想의 生産에 기인되었고 名節祭祀때 茶를 利用하였기 때문에 茶禮라 하였으며 男女의 結婚 前後를 通하여 3번의 茶禮를 行하기도 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번은 男婚女娶의 納幣를 行할 때 茶로서 禮를 行하는데 그 理由로는 茶를 달이는 烹主의 精誠이 사돈간의 情을 나눌 수 있고 2번은 婚約이 決定되면 新婦측에서 茶를 封해 보낸다. 이것을 우리는 봉채라고 하나 실제로는 對茶라 한다. 이것은 新婦가 新郎측에 貞節을 표하는 뜻이다. 그 뜻은 茶나무는 移植을 하면 죽기 때문에 이곳에서 살아간다는 뜻이다. 3번은 結婚 後 新婦가 媳家에 가서 媳宅의 先靈을 모신 祠堂에 拜謁할때 茶道를 行한다. 그 理由는 茶의 맛이 쓰고 넓고 甘味 등이 있어 人生의 모든 喜怒哀樂을 표현하지 않고 묵묵히 살아간다는 뜻이다. 이와같은 것으로 보아 茶生活

은 情緒的으로 많은 도움을 주어 조용하고 참된 人間의 生活과 멋을 아는 人間으로 지속시키는 데 도움이 컸음을 알 수 있다.

#### 4. 李祖時代의 茶生活

李祖 時代는 抑佛崇儒政策에 의해 寺院의 쇠퇴와 더불어 飲茶의 風習도 쇠퇴하였다. 그뿐 아니라 茶의 製法이 몹시 까다롭고 또한 茶葉을 구하기 어려우며 또한 도처에 좋은 물이 많아 一常生活에서 飲料에 대한 긴박성을 느끼지 않았으며 또한 구수한 香을 상용한 것이 茶의 發展을 쇠퇴시킨 원인도 되었다. 그러나 李祖時代의 茶人인 西山大師, 鄭茶山, 金正燾, 草衣大師 같은 분에 의해 茶葉을 이용한 茶生活은 계승되어 갔으나 李祖 中期로부터 한의학에 茶를 삽입시켜 藥理 效能을 겸한 香味性 材料와 혼합 또는 茶葉 사용하지 않고 飲料를 藥理와 香氣를 겸한 茶로 발전시킨 단계에 이르렀다.

#### 5. 36年時代의 茶生活

日本의 侵略에 의해 우리 民族이 가지고 있는 茶의 얼을 그들에 의해 점차 消失되어 갔으며 특히 茶葉은 日本에서는 貴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茶生活을 더욱 消失시키려고 努力했으며 또한 香藥餌性 역시 그들에 의해 消失되어 갔다 또한 日本人들은 우리 國土에 대단위 果樹栽培를 시작하면서 한 民族의 멋과 얼을 말살시키는 대신 園藝作物에 의한 渴症을 解消시키려고 했다.

#### 6. 大韓民國 建國에서 6.25의 茶生活

大韓民國 建國과 더불어 西洋의 文物이 범람하면서 커피와 홍차, 코코아 등이 茶의 代名詞처럼 利用되기 시작했다. 그 理由로는 事大主義의 一部國民의 思想에 의해 36年 동안 잊혀졌던 우리 固有의 飲料를 다시 찾을 수 없도록 하였으나 一部 뜻있는 先人들에 의하여 우리 固有의 茶를 잊지 않고 繼承되어 왔다.

#### 7. 現代의 茶生活

正國과 經濟가 安定되어 가는 것과 동시에 모든 國民의 마음속에 韓國固有의 멋과 얼을 찾고

자 하는 主體意識과 政府의 積極인 固有文化의 復興政策에 의해 近代에 와서 잃어 버릴 뻔한 우리 民族의 우수한 飲料를 다시 찾아 開發利用되고 있는 實情이다.

#### 四. 茶의 凡節

茶라는 것은 우리들 一常生活의 嗜好物로 되어 있으며 이 茶는 일찌기 孔子가 말한 不器라 일컬을 수 있는 飲食物이라 볼 수 있다. 사람들은 茶生活을 하면서 人間凡節을 攄得할 수 있으며 禮節을 배운다. 또한 茶生活이란 우리들이 眞理에 부합되고 자성된 人間生活의 眞正함을 目標로 하고 있으며 孔子도 君子의 生活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韓 民族의 食生活에 있어서 위에 말한 不已의 인 것이 우리는 茶라고 할 수 있다. 茶道에 대해 茶聖草衣는 茶는 神이며 茶에 利用되는 물은 茶의 體가 된다고 하나 茶의 體가 되는 湯水와 茶의 正수인 神이 완전하더라도 中正의 道를 넘어서 안된다. 즉 中正의 道란 茶의 神氣와 참된 水性이 잘 어울리고 융화된 것을 말한다. 즉 茶道란 참된 자성의 人間生活의 目標로 하는 茶生活을 뜻하며 다시 말하면 一常的인 生活의 道를 淸범하고 生活의 체험을 通하며 그 온전함을 自覺하고 터득하는 平常心은 道를 말한다. 위와같이 茶道란 規格과 外觀의 品位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시는 사람의 마음자세가 道의 경지가 되어야 한다. 끝으로 우리들의 趣味生活 즉 멋을 指向하는 生活은 아무래도 정서적인 方面에서 야기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정서적인 감각이 眞理性의 眞과 審美의 지경인 아름다운 世界로 이끌어 주기 때문이다. 知的인 추구나 의지적인 行動은 계산적인 타산과 아울러 生活에 피로를 가져다 주기 쉽지만 情抒的인 취미와 生活이야말로 아무리 복잡한 生活과 어려운 지경에 부딪친다고 해도 그것을 잘 조절하고 무마해서 싫은 생각이라고는 없는 크나큰 환희의 신나는 生活로 이끌어 가는 것은 茶生活의 凡節이라 할 수 있다.

## 五. 飲茶에 利用되는 것

### 1. 葉 茶

葉茶의 色은 靑翠色이 가장 좋으나 저장 부주의에 의해 綠色에서 黃色, 黑色으로 변한 다음 白色이 되는데 이것을 먹으면 위를 차게 만들고 氣가 마르고 병이 생긴다. 또한 香氣는 眞香(비 오기전에 싱그러움을 갖은것), 蘭香(불기운이 고른것), 淸香(설 익은것), 香(겉과 속이 같은 것)이 있으며 맛은 약간의 甘味가 입에 남아 있는 것이 좋다.

### 2. 水

山에서 나는 물이 좋으나, 靑石에서 나오는 물은 좋지 않으면 고여 있는 물보다 흐르는 물이 좋다. 그러나 現代의 물은 상수도 이므로 물을 받아 3일정도 정치한 다음 濾물을 사용하면 좋다.

### 3. 火

차를 끓이는 燃料로는 木炭을 사용하는데 木炭中에서도 白炭이 가장 좋다. 그 理由는 불기운이 고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現代에서는 白炭이 구하기 어려우므로 燃料로는 무엇이든 關係는 없으나 물을 완전히 끓여야 한다. 끓이는 方法은 버금이 날때까지 끓인 것을 萌湯이라 하며 이때의 물을 茶에 使用하면 위장을 차게한다. 萌湯을 소리가 날때까지 끓인것을 結熟이라 하며 그후 물 끓이는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끓인 것은 經熟이라 한다. 즉 매우 끓여 뜸이 잘 들었다는 뜻이며 이 經熟을 茶에 使用하여야 한다.

### 4. 찻잔과 茶주전자

찻잔은 白色, 黑色, 靑色 등의 여러가지 色이 있으나 茶의 色을 鑑識하는데는 무엇보다도 그 빛을 잘 받는 그릇이어야 하기 때문에 白色이 좋다. 찻잔에 담긴 茶의 色은 綠色이 가장 좋으며 그 다음은 黃色이고 간장색의 경우는 最下品으로 여긴다. 또 주전자는 茶와 물을 담아 우려 내는 것으로 陶器로 된 것이 좋다.

### 5. 茶盤 및 茶접시

茶盤이란 찻잔을 담는 다리없는 판을 말하며 茶盤은 땅속에 묻혀있는 밤나무나 참나무 등이 오랫동안 地熱에 影響을 받아 石炭化하는 過程에 있는 理木으로 된 것 즉 石炭에서 불수 있는 光澤을 내는 것이 가장 좋으며, 그 다음은 木材에 칠을 한것이 좋다. 또 茶접시는 찻잔을 받치는 작은 판으로서 차통을 받쳐 놓기도 한다.

### 6. 茶 匙

茶 匙가락은 葉茶와 抹茶에 따라 다르며 抹茶의 경우에는 대나무를 꾸부려 차가루의 重量을 달수 있게 만든것이 좋으며 葉茶의 경우는 화류나무나 대추나무로 만들어진 것과 金屬으로 된 것이라도 괜찮다.

### 7. 湯罐과 茶釜

湯罐 및 茶釜는 茶물을 끓이는 그릇을 말하며 湯罐의 경우는 적은 人員에서 使用되는 것으로 주로 길그릇이나 陶器그릇이 使用되며 茶釜는 사람이 많은 경우 湯水가 많이 必要하므로 곱돌로 된 돌솥이 가장 좋다. 또 茶솥은 사람이 적더라도 茶의 例式을 한 경우에는 湯罐보다 茶솥을 使用한다.

### 8. 茶桶과 茶壺

이들은 茶를 넣어 두는 통으로서 茶桶은 金屬中 銀으로 만든 합금의 一種으로 대롱 모양의 形態이며 뚜껑을 반드시 있게 하여 茶가 있을 경우 항상 密封하여 둔다. 茶단지는 精妙한 자기 항아리 같은 것으로 된것이며 茶桶과 같은 役割을 한다.

### 9. 香爐와 香盒

香爐는 点香하는 것으로 곱돌로 된 소박한 것이 좋으며 香爐에서 피어오르는 点香과 찻잔에서 떠오르는 眞香이 한데 어울려 他人들은 무아경의 법열에 잠긴다. 香盒은 나무나 자기로 된 뚜껑 있는 그릇이며 선향이나 가루향 편향 환향등에 따라 그릇의 모양이 다르다.

## 10. 茶巾과 茶布

茶巾은 차행주이며 茶를 마시기 前에 찻잔을 닦는 것으로 흰색의 麻布가 가장 좋다. 茶布는 찻잔 위를 닦는 보자기로서 붉은 비단이 으뜸이다. 그외에 茶에 사용되는 器具로는 茶床, 茶啖床, 果盤, 茶水器, 納汚, 茶筋 등의 여러가지 있으며 간단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11. 기 타

① 茶壺; 一名 차단지 또는 차항아리라 하며 茶를 넣어 두는 단지 모양의 통을 말하는데 瓷器로 된것이 좋다.

② 茶鍾; 뚜껑이 있는 茶 담는 잔을 말한다. 白色瓷器와 靑色瓷器가 좋다.

③ 茶床; 一名 모차상 차소반 차상이라 하며 茶와 찻잔등을 놓는 다리가 있는 茶床을 말한다

④ 茶台; 찻잔을 놓는 다리가 긴 높은 상을 말한다.

⑤ 茶啖床; 一名 두루상이라 하며 여러 사람이 茶를 마실때 둘러 앉게 놓는 床을 말한다.

⑥ 果盤, 一名 과일반 이라 하며 과자를 담는 그릇을 말한다.

⑦ 茶菓器; 다식접시 과일 또는 차굽접시라 하며 과자를 덜어 먹는 그릇을 말한다.

⑧ 茶爐; 차화로 따로 또는 차화덕이라 하며 茶 물을 끓이는 화로를 말한다.

⑨ 茶水器; 一名 정수기 또는 귀탕기, 귀뚝배기, 빼뚜리, 물식힘 사발이라 하며 茶물을 식히는 그릇을 말한다.

⑩ 納汚; 제발 차쓸개 또는 재발이라 하며 茶 찌꺼기나 물을 버리는 그릇을 말한다.

⑪ 茶筋; 一名 차저대 차돌리개라 하며 말차를 飲用하고자 할때 茶가루를 푸는것을 말한다.

六. 왜 우리는 우리의 固有茶를 마셔야 하는가?

(1) 茶라는 것은 우리들 日常生活의 嗜好物로

되어 있으며 특히 몸이나 마음이 한가로울때 또는 피로하거나 손님을 맞아 情談을 나눌때 한잔의 茶를 必要로 하기 때문이다.

(2) 茶의 마시는 것을 단계적으로 表現한다면 곧 멋의 生活이다. 茶의 멋이란 無限性和 永遠性이 있으며 內面的인 멋이 가장 極致를 이룬다 內面的인 참멋은 人間의 本性을 通達하는 완전한 德을 가지므로 歡喜를 느끼게 된다 이 歡喜가 바로 멋이다.

(3) 茶를 마시므로써 善을 行하는 것이므로 人間으로서 충분한 人間性을 發揮할 수 있다. 그 理由는 人間이 지니고 있는 本來의 使命이 있으며 이 使命을 德行으로 이루고져 하는 人間 凡節을 배울 수 있다.

(4) 茶生活을 통하여 日常生活의 反省을 할수 있다. 그 뜻으로는 한잔의 茶를 위해 닦이는 過程과 마시는 도중에 온전함을 自覺하고 터득하기 때문이다.

(5) 現在 우리가 마시는 茶는 대부분이 外國에서 輸入되는 커피이며 그 이외의 飲料 역시 材料가 外國에서 輸入되는 것이므로 이들에 의해 많은 外貨가 支出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수하고 고유한 빛을 잃어가고 있는 實情이다. 이러한 弊端을 막기 위해 우리의 固有茶를 開發하여 國內의 産業發展을 圖謀할 뿐 아니라 우리 民族의 精氣와 얼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6) 우리 領土는 山野가 특히 많아 山野에 잘 자라나는 茶나무와 藥用植物을 栽培하므로 效率的인 國土管理가 될뿐 아니라 농민의 소득증대도 꾀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끝으로 茶를 마신다는 것은 人間의 마음속에 있는 自慢과 驕慢을 던져버리고 순수한 人間 본연의 姿勢로 돌아가 民族統一의 지름길인 協同 協助의 生活과 우리 祖上의 얼을 되찾은 生活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